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실시 가능성에 따른 기업인 의견 조사

2020. 12.



화성상공회의소

[조사진용팀]

- 목 차 -

I.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개요
3. 조사 내용
4. 응답기업 특성

II. 조사 결과

1. 현재 도입중인 유연근무제 유형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
 - 2-1. 재택근무 가능 기업 중 재택근무 최대 가능 인원 비율
 - 2-2. 재택근무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인한 예상 피해 유형
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른 필수 인력
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필수적인 업무 방식
6. 재택근무 의무화를 위한 필요 지원 사항
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 부족 여부

III. 요약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전국적 대유행) 실시 가능성에 따른 기업인 의견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협력 및 기업 지원방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화성지역 중소기업 150개사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및 FAX 조사
- 조사 기간 : 2020. 12. 17(목) ~ 12. 18(금)
- 조사 기관 : 화성상공회의소

3. 조사 내용

- 업체 기본 정보 (기업명 / 종업원 수 / 작성자)
- 현재 도입중인 유연근무제 유형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
- 재택근무 가능 기업 중 재택근무 최대 가능 인원 비율
- 재택근무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인한 예상 피해 유형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른 필수 인력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필수적인 업무 방식
- 재택근무 의무화를 위한 필요 지원 사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 부족 여부

4. 응답기업 특성

구분		기업(개사)	비중(%)
전체		150	100.0
규모	10인 미만	32	21.3
	10인 이상 50인 미만	91	60.7
	50인 이상 100인 미만	19	12.7
	100인 이상	8	5.3

II. 조사 결과

1. 현재 도입중인 유연근무제 유형

-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에서,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유형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정상근무’ 81.7%, ‘한시적 탄력근무(시차출퇴근)’ 5.9%, ‘일부 혹은 전체 휴직’이 각각 5.2%로 조사되었으며, ‘재택근무’는 1.3%만 실시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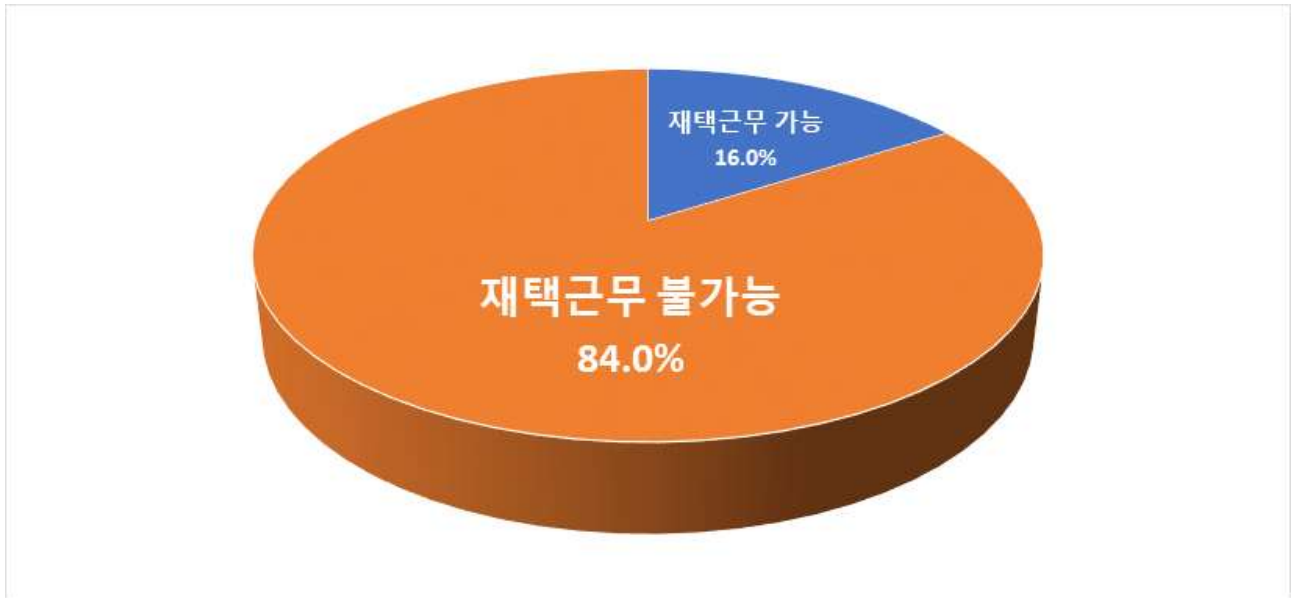
[그림1 현재 도입중인 유연근무제 유형]

		기업 (개사)	재택 근무	단축 근무	한시적 탄력근무 (시차출퇴근)	휴직	정상 근무	기타
전 체		150	1.3%	2.0%	5.9%	5.2%	81.7%	3.9%
규모	10인 미만	32	0.0%	3.1%	0.0%	12.5%	81.3%	3.1%
	10인 이상 50인 미만	91	2.1%	2.1%	5.3%	3.2%	83.0%	4.3%
	50인 이상 100인 미만	19	0.0%	0.0%	21.1%	5.3%	73.7%	0.0%
	100인 이상	8	0.0%	0.0%	0.0%	0.0%	87.5%	12.5%

[표1 현재 도입중인 유연근무제 유형]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발효 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능(추후 가능)’ 16.0%, **‘불가능’ 84.0%** 으로 조사됨. 특히,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재택근무 가능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100인 이상’ 기업의 재택근무 가능 비율이 가장 크게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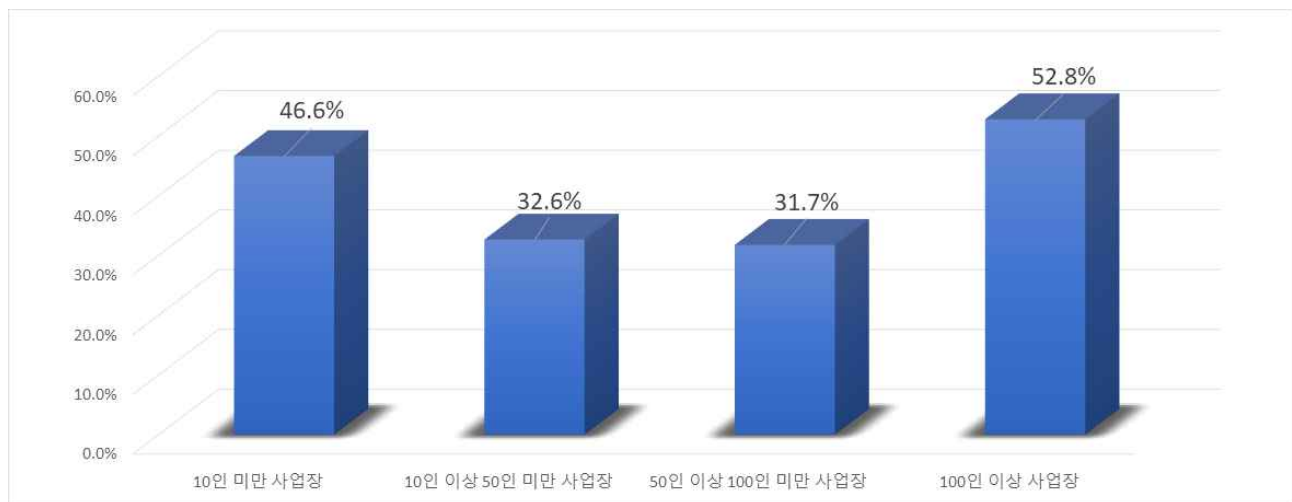
[그림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

		기업 (개사)	재택근무 가능	재택근무 불가능
전 체		150	16.0%	84.0%
규모	10인 미만	32	18.8%	81.3%
	10인 이상 50인 미만	91	16.5%	83.5%
	50인 이상 100인 미만	19	5.3%	94.7%
	100인 이상	8	25.0%	75.0%

[표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

2-1. 재택근무 가능 기업 중 재택근무 최대 가능 인원 비율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인해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가능(추후 가능) 이라고 응답한 기업에게 재택근무 가능한 최대 인원 비율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종업원 수 대비 ‘10인 미만’ 기업이 46.6%, ‘1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32.6%,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 31.7%, ‘100인 이상’ 기업이 52.8% 으로 ‘10인 미만’ 기업과 ‘100인 이상’ 기업의 재택근무 최대 가능 인원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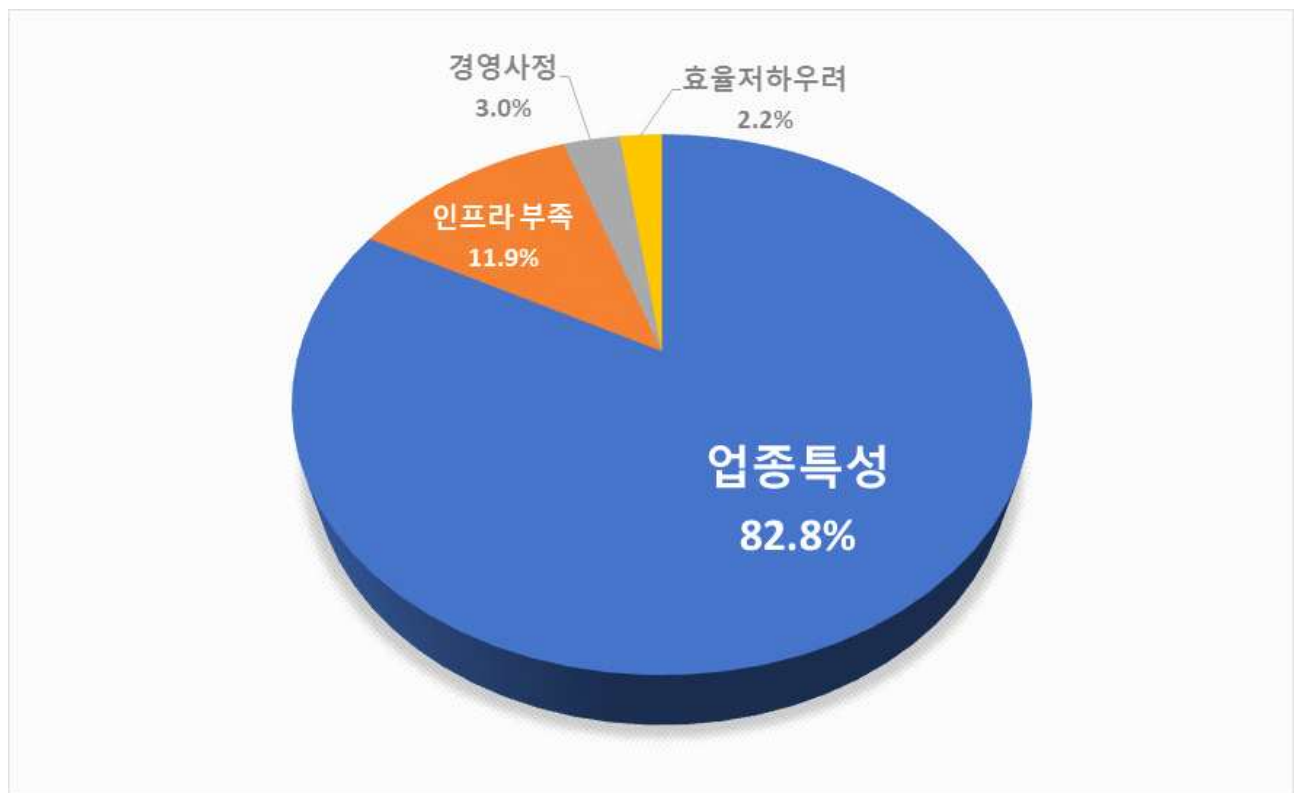
[그림2-1 재택근무 가능 기업 중 재택근무 최대 가능 인원 비율]

		기업 (개사)	평균비율
전 체		24	40.9%
규모	10인 미만	6	46.6%
	10인 이상 50인 미만	15	32.6%
	50인 이상 100인 미만	1	31.7%
	100인 이상	2	52.8%

[표2-1 재택근무 가능 기업 중 재택근무 최대 가능 인원 비율]

2-2. 재택근무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발효 시,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업종특성상 도입 어려움**’이 82.8%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음’ 11.9%, ‘회사 경영상 사정’ 3.0%, ‘재택근무 운영에 따른 효율 저하 우려’ 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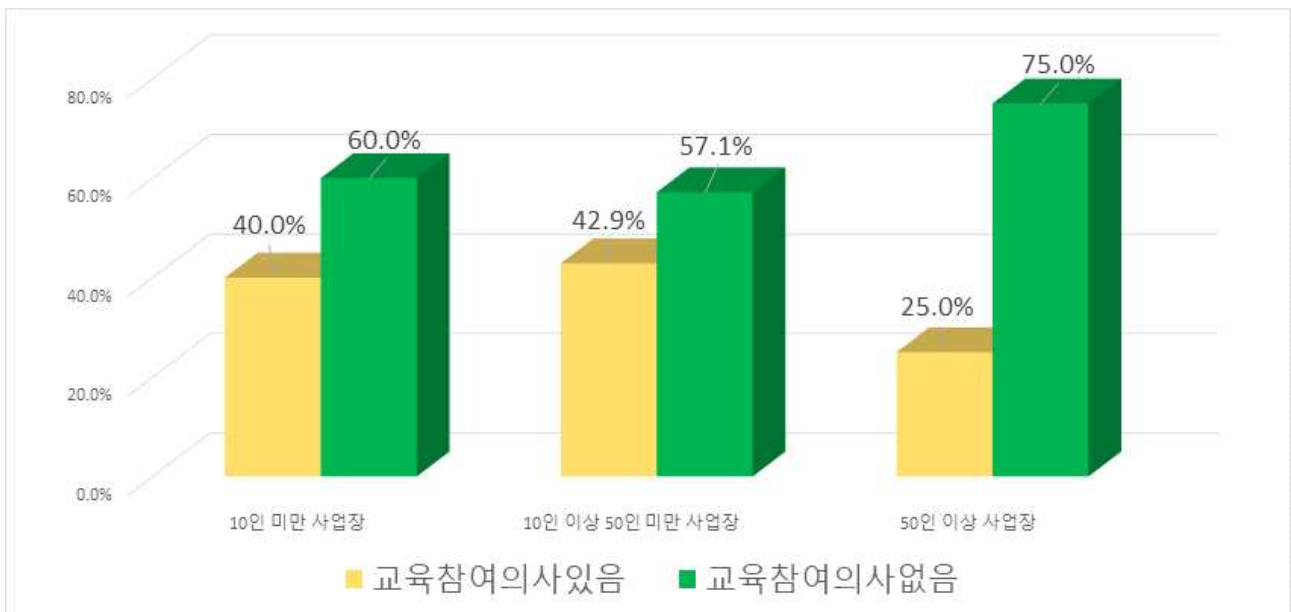


[그림2-2 재택근무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

		기업 (개사)	업종특성	인프라 부족	경영사정	효율저하우려
전 체		126	82.8%	11.9%	3.0%	2.2%
규모	10인 미만	26	67.9%	17.9%	10.7%	3.6%
	10인 이상 50인 미만	76	88.8%	8.8%	1.3%	1.3%
	50인 이상 100인 미만	18	80.0%	15.0%	0.0%	5.0%
	100인 이상	6	83.3%	16.7%	0.0%	0.0%

[표2-2 재택근무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

□ 또한,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에게 중기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교육’ 사업 참여의사를 조사한 결과, ‘교육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37.5%) 보다 ‘교육 참여 의사가 없는’ 기업(62.5%)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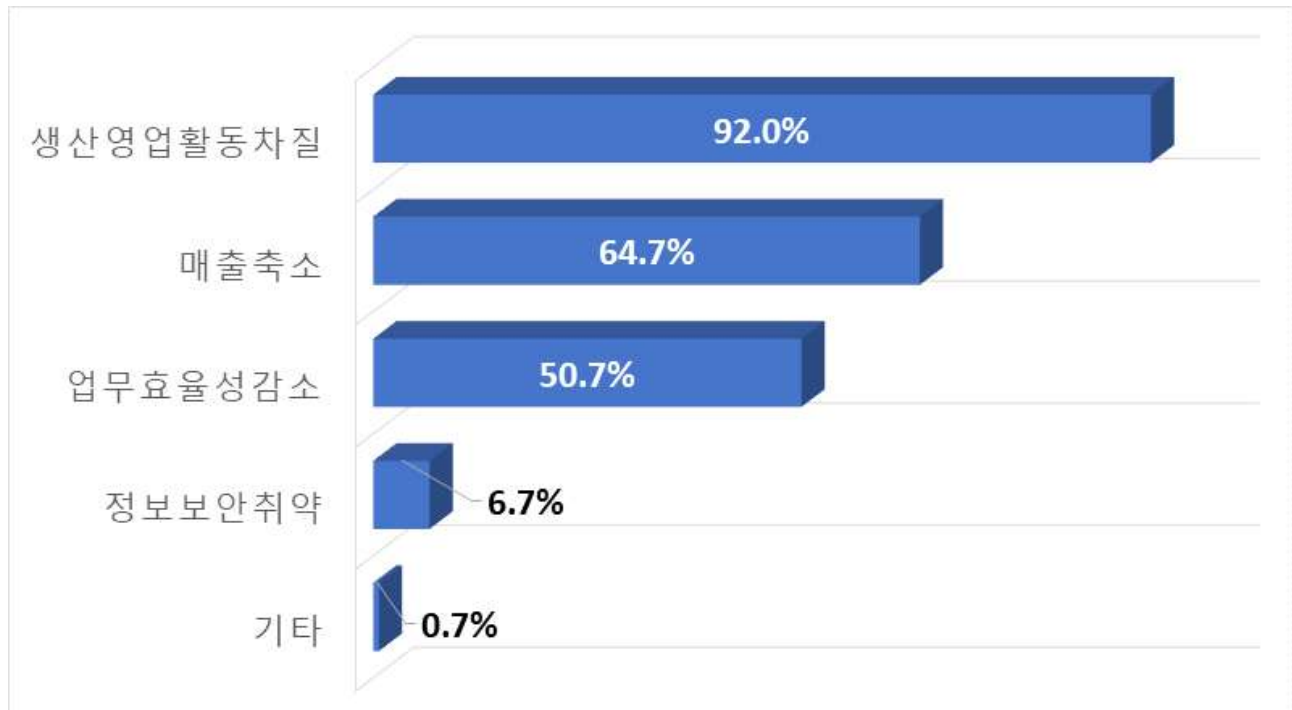
[그림2-2-2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 중 ‘유연근무제 활성화 교육’ 참여 의사 비율]

		기업 (개사)	교육 참여 의사 있음	교육 참여 의사 없음
전 체		16	37.5%	62.5%
규모	10인 미만	5	40.0%	60.0%
	10인 이상 50인 미만	7	42.9%	57.1%
	50인 이상 100인 미만	3	25.0%	75.0%

[표2-2-2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 중 ‘유연근무제 활성화 교육’ 참여 의사 비율]

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인한 예상 피해 유형 (복수 응답)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라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하는 경우, 기업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생산·영업 활동 차질’이 있다는 의견이 9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다른 피해 유형으로는 ‘매출 축소’ 64.7%, ‘업무 효율성 감소’ 50.7%, ‘기술 유출 등 정보 보안 취약’ 6.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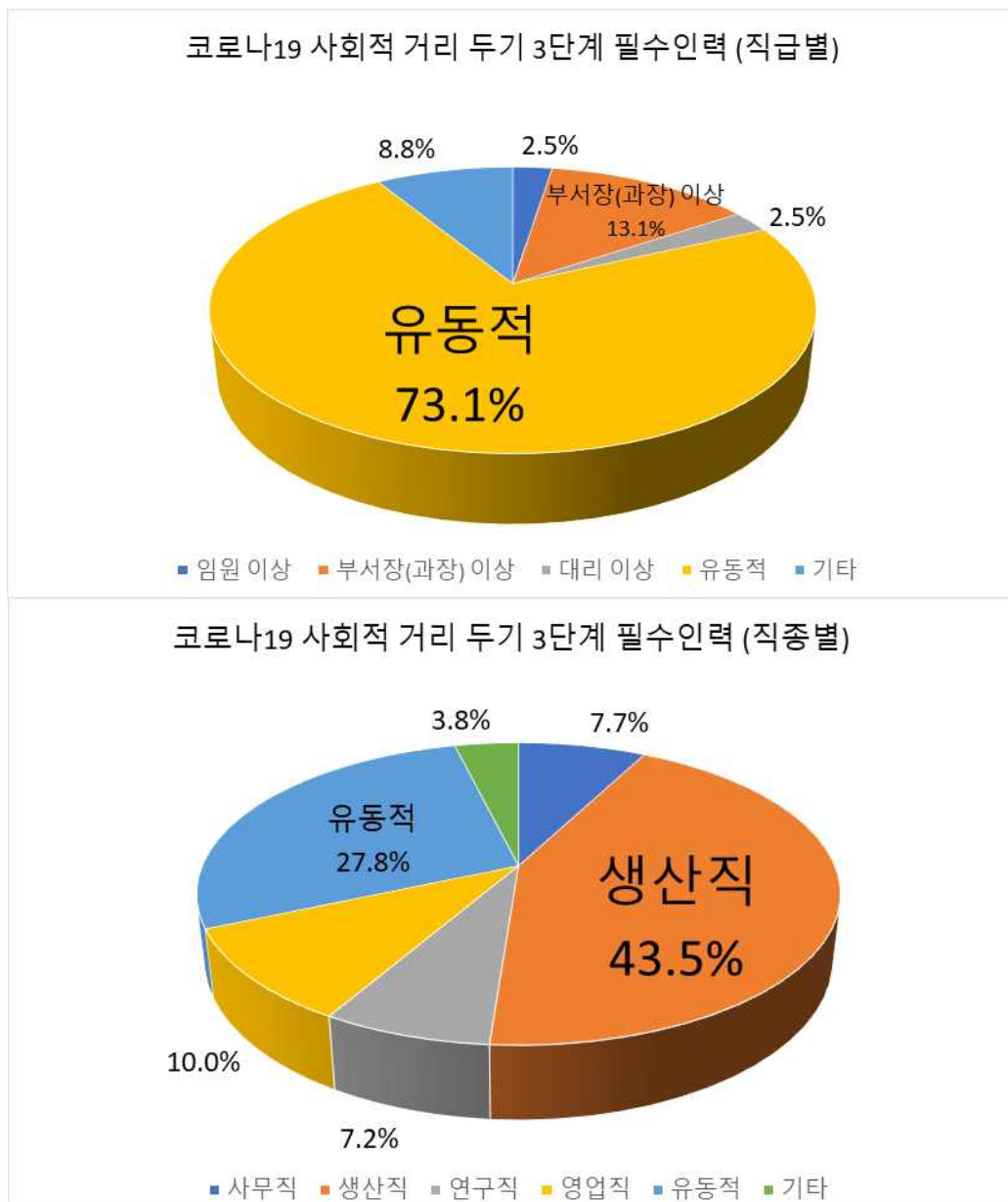
[그림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인한 예상 피해 유형]

		기업 (개사)	생산·영업 활동차질	매출축소	업무효율성 감소	정보보안 취약	기타
전 체		150	92.0%	64.7%	50.7%	6.7%	0.7%
규모	10인 미만	32	84.4%	71.9%	34.4%	0.0%	0.0%
	10인 이상 50인 미만	91	93.4%	63.7%	56.0%	5.5%	1.1%
	50인 이상 100인 미만	19	100.0%	63.2%	57.9%	15.8%	0.0%
	100인 이상	8	87.5%	50.0%	37.5%	25.0%	0.0%

[표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인한 예상 피해 유형]

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른 필수 인력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른 필수인력의 직급별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업무성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응답이 73.1% 로 가장 많았으며, ‘부서장(과장)급 이상’이 13.1%, ‘임원급 이상’과 ‘대리급 이상’이 각각 2.5%, ‘기타’ 의견이 8.8% 순으로 나타남.
- 이와 달리, 직종별 유형은 ‘생산직’이 43.5% 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직’이 10.0%, ‘사무직’이 7.7%, ‘연구직’이 7.2% 순으로 나타남. 또한, ‘업무성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응답이 27.8%, ‘기타’ 의견 3.8% 로 나타남.



[그림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른 필수 인력 (직급별/직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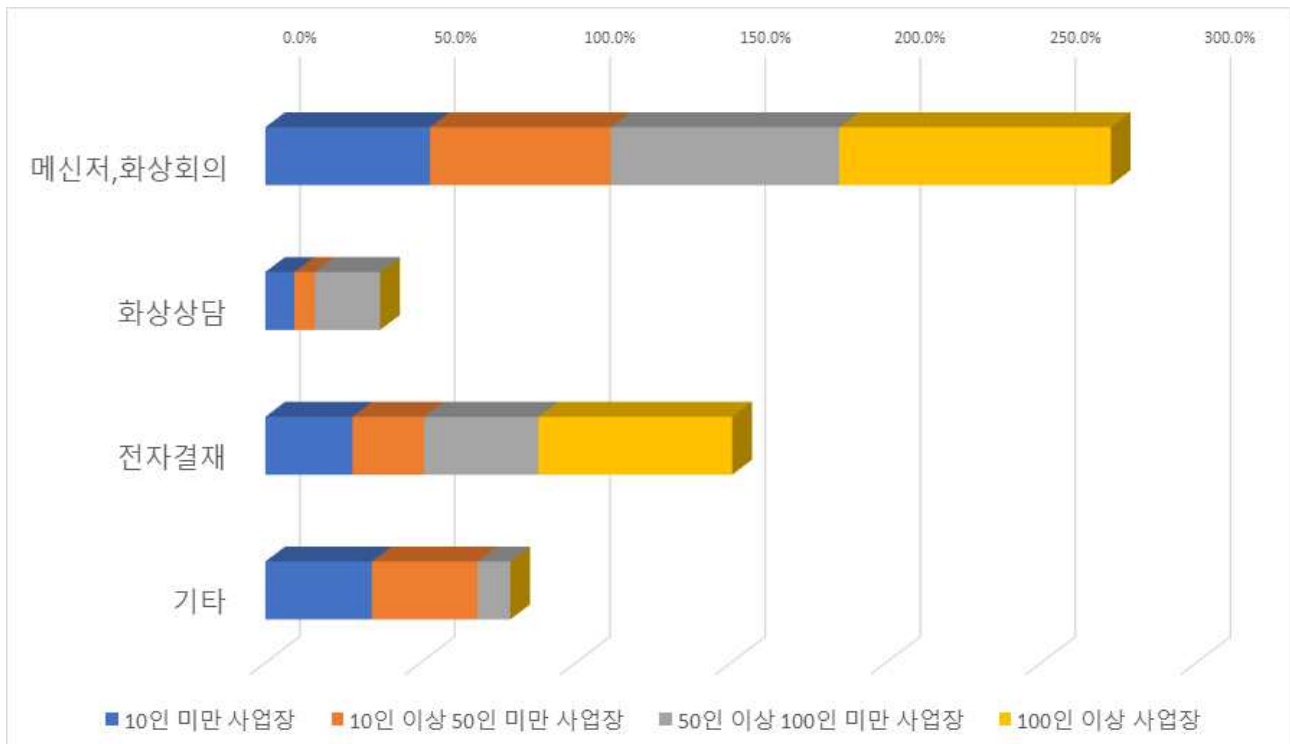
		기업 (개사)	임원 이상	부서장(과장) 이상	대리 이상	유동적	기타
전 체		150	2.5%	13.1%	2.5%	73.1%	8.8%
규모	10인 미만	32	2.9%	14.7%	0.0%	70.6%	11.8%
	10인 이상 50인 미만	91	2.1%	12.4%	3.1%	73.2%	9.3%
	50인 이상 100인 미만	19	0.0%	10.5%	0.0%	89.5%	0.0%
	100인 이상	8	10.0%	20.0%	10.0%	50.0%	10.0%

		기업 (개사)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영업직	유동적	기타
전 체		150	7.7%	43.5%	7.2%	10.0%	27.8%	3.8%
규모	10인 미만	32	12.5%	37.5%	5.0%	10.0%	30.0%	5.0%
	10인 이상 50인 미만	91	6.3%	46.1%	7.8%	9.4%	25.8%	4.7%
	50인 이상 100인 미만	19	3.4%	41.4%	6.9%	13.8%	34.5%	0.0%
	100인 이상	8	16.7%	41.7%	8.3%	8.3%	25.0%	0.0%

[표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른 필수 인력 (직급별/직종별)]

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필수적인 업무 방식 (복수 응답)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가정했을 때, 가장 필수적인 업무 방식으로는 ‘업무용 메신저, 화상회의 활용’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필수적인 업무 방식으로는 ‘전자결재 시스템’ 28.0%, ‘국내·외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8.7%로 나타남. ‘기타’ 29.3% 의견으로는 ‘전공정 자동화’, ‘클라우드 시스템’ 등이 있음.



[그림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필수적인 업무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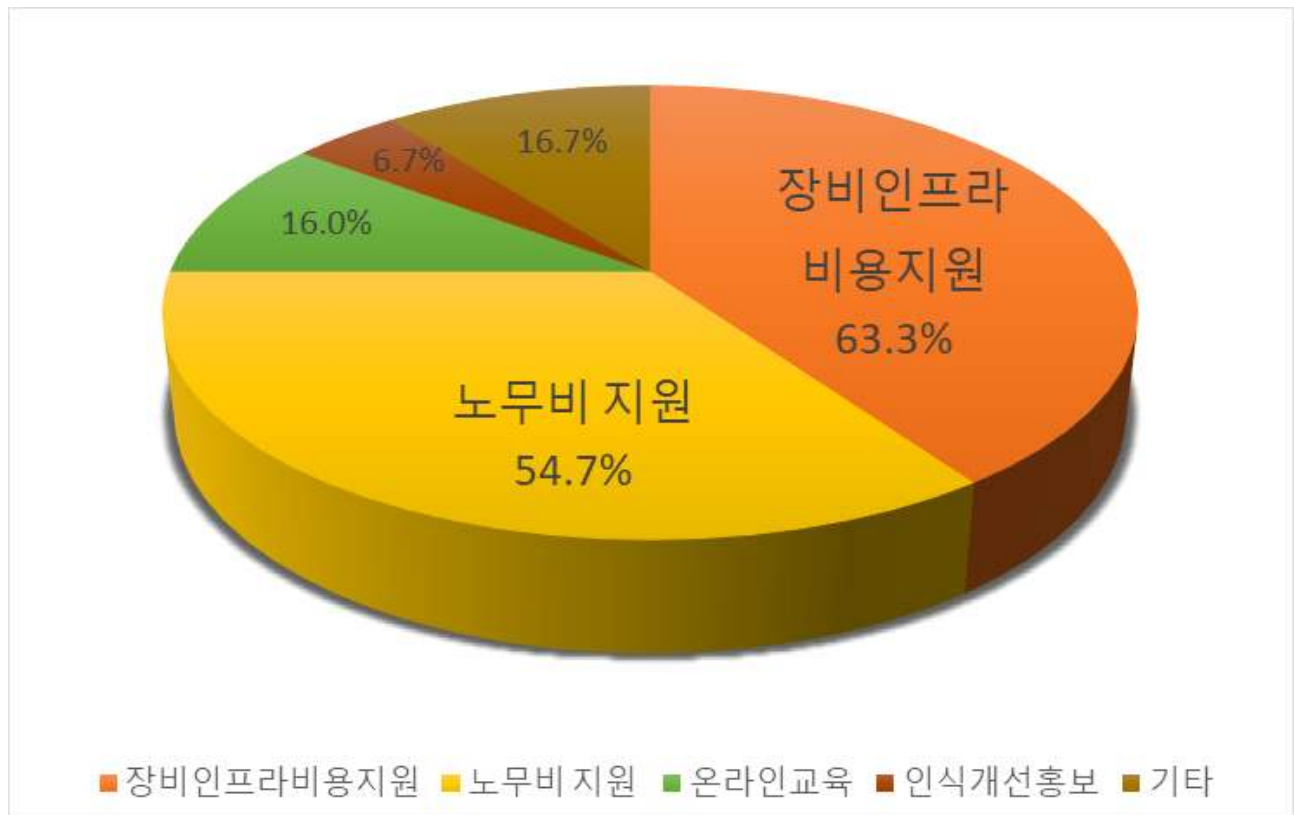
		기업 (개사)	메신저, 화상회의	화상상담	전자결재	기타
전 체		150	60.7%	8.7%	28.0%	29.3%
규모	10인 미만	32	53.1%	9.4%	28.1%	34.4%
	10인 이상 50인 미만	91	58.2%	6.6%	23.1%	34.1%
	50인 이상 100인 미만	19	73.7%	21.1%	36.8%	10.5%
	100인 이상	8	87.5%	0.0%	62.5%	0.0%

[표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필수적인 업무 방식]

6. 재택근무 의무화를 위한 필요 지원 사항 (복수 응답)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인한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장비·인프라 (PC, 카메라, 프로그램 등) 구입비용’ 및 ‘노무비’ 지원이 각각 63.3%와 54.7%로 나타남. 반면, ‘100인 이상’ 기업들은 ‘장비·인프라 (PC, 카메라, 프로그램 등) 구입비용’ 지원보다는 ‘노무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외에도 ‘온라인 업무 방법 교육’ 16.0%, ‘(시민, 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6.7%로 나타났으며, ‘기타’ 16.7% 의견으로, ‘재택근무 표준 규정 제공’, ‘휴직자 보상제도 마련’, ‘납기 연장(지연) 대응 매뉴얼 제공’ 등이 있음.



[그림6 재택근무 의무화를 위한 필요 지원 사항]

		기업 (개사)	장비인프라 비용지원	노무비 지원	온라인 교육	인식개선 홍보	기타
전 체		150	63.3%	54.7%	16.0%	6.7%	16.7%
규모	10인 미만	32	59.4%	59.4%	6.3%	12.5%	9.4%
	10인 이상 50인 미만	91	62.6%	52.7%	15.4%	4.4%	19.8%
	50인 이상 100인 미만	19	84.2%	52.6%	31.6%	5.3%	10.5%
	100인 이상	8	37.5%	62.5%	25.0%	12.5%	25.0%

[표6 재택근무 의무화를 위한 필요 지원 사항]

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 부족 여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국인 직원 채용 및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일손 부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손이 충분’한 기업(44.0%)보다 ‘일손이 부족’한 기업(56.0%)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났음.



[그림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 부족 여부]

		기업 (개사)	일손 충분	일손 부족
전 체		150	44.0%	56.0%
규모	10인 미만	32	50.0%	50.0%
	10인 이상 50인 미만	91	44.0%	56.0%
	50인 이상 100인 미만	19	26.3%	73.7%
	100인 이상	8	62.5%	37.5%

[표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손 부족 여부]

III. 요약

-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에서, 기업들이 유연근무제 유형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정상근무’ 81.7%**, **‘한시적 탄력근무(시차출퇴근)’ 5.9%**, **‘일부 혹은 전체 휴직’**이 각각 5.2%로 조사되었으며, **‘재택근무’**는 1.3%만 실시한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발효 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가능(추후 가능)’ 16.0%**, **‘불가능’ 84.0%** 으로 조사됨. 특히,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재택근무 가능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100인 이상’** 기업의 재택근무 가능 비율이 가장 크게 조사되었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인해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가능(추후 가능)이라고 응답한 기업에게 재택근무 가능한 최대 인원 비율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종업원 수 대비 **‘10인 미만’ 기업이 46.6%**, **‘1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이 32.6%**,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 31.7%**, **‘100인 이상’ 기업이 52.8%** 으로 **‘10인 미만’** 기업과 **‘100인 이상’** 기업의 재택근무 최대 가능 인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발효 시,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업종특성상 도입 어려움’이 82.8%**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음’ 11.9%**, **‘회사 경영상 사정’ 3.0%**, **‘재택근무 운영에 따른 효율 저하 우려’ 2.2%**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에게 중기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교육’** 사업 참여의사를 조사한 결과, **‘교육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37.5%)보다 **‘교육 참여 의사가 없는’ 기업(62.5%)**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라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하는 경우, 기업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생산·영업 활동 차질’이 있다는 의견이 9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다른 피해 유형으로는 **‘매출 축소’ 64.7%**, **‘업무 효율성 감소’ 50.7%**, **‘기술 유출 등 정보 보안 취약’ 6.7%**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른 필수인력의 직급별 유형을 묻는 질문에

는, ‘업무성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응답이 73.1% 로 가장 많았으며, ‘부서장(과장)급 이상’이 13.1%, ‘임원급 이상’과 ‘대리급 이상’이 각각 2.5%, ‘기타’ 의견이 8.8% 순으로 나타남. 이와 달리, 직종별 유형은 ‘생산직’이 43.5% 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직’이 10.0%, ‘사무직’이 7.7%, ‘연구직’이 7.2% 순으로 나타남. 또한, ‘업무성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응답이 27.8%, ‘기타’ 의견 3.8% 로 나타남.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가정했을 때, 가장 필수적인 업무 방식으로는 ‘업무용 메신저, 화상회의 활용’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필수적인 업무 방식으로는 ‘전자결재 시스템’ 28.0%, ‘국내·외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8.7%로 나타남. ‘기타’ 29.3% 의견으로는 ‘전공정 자동화’, ‘클라우드 시스템’ 등이 있음.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인한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장비·인프라 (PC, 카메라, 프로그램 등) 구입비용’ 및 ‘노무비’ 지원이 각각 63.3%와 54.7%로 나타남. ‘온라인 업무 방법 교육’ 16.0%, ‘(시민, 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6.7%로 나타났으며, ‘기타’ 16.7% 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

1. 재택근무 표준규정 제공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재택근무 의무화 예외 필요)
- 제조업의 경우 필수인력의 의미 구체화 필요
- 재택근무 불가시 대처방안 마련 필요 (예를 들면, 생산현장 거리유지 등을 충분히 지키며 작업할 수 있게 하여 정상생산 여건이 마련되도록 함)
- 모기업과 협력사의 업무 프로세스 정립 및 인식전환을 통해 단납기, 긴급방문 등의 예외상황을 줄여야 함
- 납기 연장(지연) 대응 매뉴얼 제공

2. 회사 경영활동을 위한 설비 및 자금 지원

- 시설자동화 도움 (기술인력 양성 등)
- 공장 임대료 지원
- 경영안정자금, 저금리대출자금 지원
- 지방세 납부유예 또는 감면
- 회사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책 마련 (예를 들면, 기숙사 생활 구호물품 및 사내식당 거리두기용 식사 시스템 마련)

3. 근로자에 대한 지원

- 휴직자 보상제도 마련
- 재택근로자를 위한 노트북 대여서비스 및 통신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입국 격리기간 단축 및 외국인 비자 연장
- 코로나19 검사 무상지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국인 직원 채용 및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일손 부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손이 충분’한 기업(44.0%)보다 ‘일손이 부족’한 기업(56.0%)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크게 나타났음.